

전일동향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소식에... 1,346.70원에 마감

7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350.40원(15:30 기준) 대비 2.60원 하락한 1,347.80원(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쏟아지는 달러 매도 물량에 1,330원대까지 하락한 뒤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1,346.7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4.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66.7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47.80	1349.50	1334.70	1346.70	1342.60
	엔화	863.98	872.93	856.09	866.79	-
	유로화	1567.75	1568.83	1550.83	1563.1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8	-2.1	-5.21	-11.07
	결제환율(수입)	-0.09	-0.73	-3.07	-7.4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엔화 강세에...1,34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40.50, 15:30 기준) 대비 4.85원 상승한 1,344.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엔화 강세로 하락 전망한다.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인 가운데 엔화는 한층 더 강세를 보이며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 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된 여파로, 이는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결제 대금 유입에 더해 조선·중공업체의 대규모 수주 물량까지 맞물리며 환율 하락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소식과 국제유가 오름세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40.00 ~ 135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531.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85원 ↑
	■ 美 다우지수 : 0, 0p(0%)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79.2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76 억원